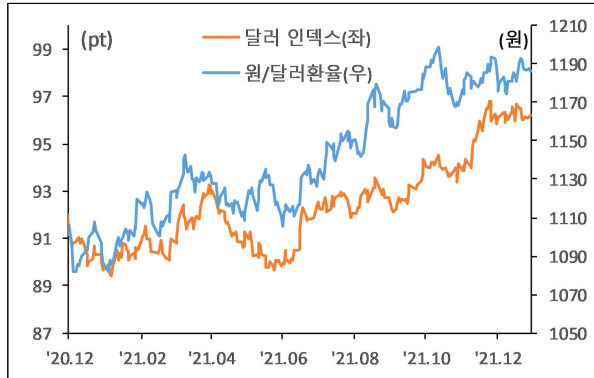


# 국제금융시장 12월 동향 및 1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 천 경 원 (cheonkw@kdb.co.kr)  
 장 명 화 (clarajang@kdb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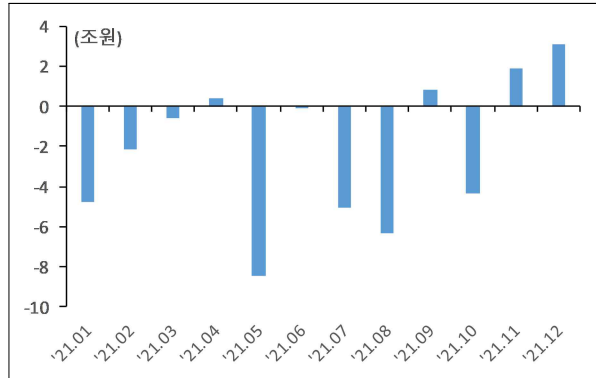
- ◆ (환율) 12월 원/달러 환율은 선진국의 통화긴축,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 등으로 하락 반전, 1월에는 하락 우위의 보합세 예상
  - ◆ (금리) 12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마감, 1월에는 전월말 수준을 전후한 보합 등락 전망
  - ◆ (추가) 12월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호조세를 보였으며, 1월에도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이어질 전망
- (환율) 원/달러 환율은 12월 초 1,175원~1,185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12.21일 1,192원대까지 상승하였으나 12월 말 코로나 치료제 승인 소식에 상승 폭 축소, 1월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완화 등으로 원/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 예상
- (글로벌 동향) 선진국의 통화긴축과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화 강세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12월 말 미국의 코로나 치료제 승인 소식 등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달러인덱스\* 소폭 하락
- \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  - FOMC의 테이퍼링 가속화\*, ECB의 '22년 3월 PEPP(팬데믹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)\*\* 종료 결정, 영국 BOE의 기준금리 인상 등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보임
  - \* 12월 FOMC에서는 자산매입규모 감축을 월 U\$150억에서 U\$300억으로 확대하기로 결정,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기존보다 3개월 빠른 '22년 3월 종료될 것으로 예상
  - \*\* ECB는 총 €1조 8,500억 규모의 PEPP를 '22년 3월 종료할 예정, 다만 자산매입프로그램(APP)을 월 €200억에서 €400억으로 증액하여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
  -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,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12월 중 원/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12월 말 미국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승인 소식, 경제 봉쇄 우려 해소\*등이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
  - \*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12.21일 긴급 연설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이 우려한 경제 봉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시장이 안도
- (국내 동향) 글로벌 증시 호황 등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 지속
- 11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가 순매수세로 전환된 이후 12월에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가 지속되며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

달러 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추이

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외국인 주식(KOSPI) 순매수 추이



자료 : 한국거래소(KRX)

- (전망) 1월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완화, 외국인 국내 주식 매수세 지속 등으로 원/달러 환율은 하락 우위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
  - 미국의 예상 금리인상 시점\*은 앞당겨졌으나 금리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되어 원/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
  - \* 시장에서는 '22년 3월 양적완화가 종료된 이후 5월~6월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
  -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S&P지수가 사상 최고치(12.29일 4,793.06)를 경신하는 등 증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의 기대감으로 1월에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계속되며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  - 다만, 유럽국가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환율 추이

|        | '19년말   | '20년말   | '21.11월말 | '21.12월말 | 전월대비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원/달러   | 1,156.4 | 1,086.3 | 1,187.9  | 1,188.8  | +0.08% |
| 달러 인덱스 | 96.479  | 89.927  | 96.273   | 96.141   | △0.14% |
| 달러/유로  | 1.1219  | 1.2217  | 1.128    | 1.131    | +0.28% |
| 엔/달러   | 108.66  | 103.26  | 113.66   | 114.82   | +1.02% |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12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마감, 1월에는 전월말 수준 내외의 보합 등락 예상

- (동향) 12월 주요국 장기금리는 전월비 변동폭이 축소된 가운데 박스권내 혼조세 마감
  -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1월 물가상승률 최고치 경신\*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, 오미크론 변이 위력에 대한 안도 등 재료 혼재로 1.3~1.5%대 박스권내 등락을 반복
  - 12.14~15일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결정 및 점도표상 금리 인상시기 조기화 가능성 시사로 금리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내 안정을 회복
  - \* 생산자물가 상승률 : 전년대비 9.6%↑('10년 이후 최고치), 소비자물가 상승률 : 전년대비 6.8%↑(1982년 이후 최고치)
  - 독일과 일본 장기금리도 대체로 미 국채시장 움직임에 동조하며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마감
  
- (전망) '22.1월에는 금융당국의 인플레이션 제어 욕구와 약화된 경기회복 기대감이 대치하며 전월말 수준의 보합권을 등락할 전망
  - 주요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, 고조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제어에 우선적인 무게를 둘 전망이나, 이미 노출된 재료 이상의 추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  - 미 바이든 행정부의 Build Back Better 법안이 1월 중에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, 대규모 경기부양 기대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 국채금리 상향요인이 완화될 가능성

주요국 국채금리 추이

|         | '19년말   | '20년말   | '21.11월말 | '21.12월말 | 전월대비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미국채 10y | 1.9175  | 0.9132  | 1.4443   | 1.5101   | +6.58bp  |
| 독일채 10y | -0.1850 | -0.5690 | -0.3490  | -0.1770  | +17.20bp |
| 일본채 10y | -0.0110 | 0.0210  | 0.0570   | 0.0710   | +1.40bp  |

자료 : Bloomberg

□ (주가) 12월 주요국 증시는 대체적인 상승세를 이었으며, 1월에도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이어질 전망

- (동향) 12월 주요국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 여파에 대한 우려 등으로 월중 혼조가 있었으나, 대체로 호조를 보이며 전월말 대비 상승 마감
  - 미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유동성 위축 우려로 FOMC 이후 3일(12.16~20일) 연속 하락하기도 하였으나, 코로나 치료제 사용승인 등에 따른 오미크론 대처력 향상 기대로 연말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\*를 또다시 경신
    - \* 월중 최고치 : 다우존스 36,488.63 (29일), 나스닥 15,871.26 (27일), S&P500 4,793.06 (29일)
  - 유로Stoxx50 지수는 유럽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일부 국가들의 방역 조치 재강화\*, 미국 및 영국 등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방향으로 혼조를 보이기도 했으나, 대체로 미 증시와 동조하며 전월말 대비 상승 마감
    - ECB는 긴급자산매입(PEPP)을 '22.3월 예정대로 종료하나 경기부양을 위한 자산매입은 지속할 의지를 나타낸 것도 증시내 우호심리를 지탱
      - \* 오미크론 공포가 발생 초기에 비해 완화되었음에도,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한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새로운 경제 봉쇄를 발표하는 등 부담 지속
  - Nikkei225 지수도 미 증시와 대체로 동조
- (전망) '22.1월 주요국 증시는 과열 경계감 가운데서도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 등에 따른 경기회복 자신감이 이어지며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유지될 전망
  -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전과 같은 봉쇄조치보다는 백신 인센티브 정책을 앞세움에 따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기 재위축 우려는 제한적일 가능성
  - 다만,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는 만큼 기업실적의 기대 초과 여부를 예민하게 확인하며 반영해갈 전망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|             | '19년말     | '20년말     | '21.11월말  | '21.12월말  | 전월대비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다우존스        | 28,538.44 | 30,606.48 | 34,483.72 | 36,338.30 | +5.38% |
| 유로 Stoxx 50 | 3,745.15  | 3,552.64  | 4,063.06  | 4,298.41  | +5.79% |
| Nikkei 225  | 23,656.62 | 27,444.17 | 27,821.76 | 28,791.71 | +3.49% |

자료 : Bloomberg

(담당자 : 환율 - 천경원, 금리·주가 - 장명화)